



폭염·폭우·태풍 이겨낸 고마운 사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1구의 한 농장 사과나무에서 홍로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이들 홍로는 이번 주말부터 수확에 들어가 추석 선물세트나 제수용으로 팔릴 예정이다. 과수농가에서는 올 여름 예년과 달리 오랜 장마와 폭우,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가 겹쳐 과수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선물세트용 사과에 쓰이는 홍로의 평균 도매가가 전년에 비해 48%나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과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정신문팀

차(車)배터리 대기업서 1조 5천 억 증설 투자 유치

도·서산시-SK온 투자협약 서산 오토밸리 산단에 입주 배터리 생산 연간 28만 대

충남도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글로벌 기업인 에스케이(SK) 온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8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에스케이(SK)온, 서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투자협약(MOU)에 따르면, 에스케이(SK)온은 서산 오토밸리 산단지 내 4만 4152m²의 부지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

이를 위해 에스케이(SK)온은 2025년 12월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에스케이(SK)온 서산 공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연간 7만 대에서 28만 대로 늘게 된다.

에스케이(SK)온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

도와 서산시는 에스케이(SK)온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편다.

도는 에스케이(SK)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산시 내 생산액 변화 4332억 원, 부가 가치 변화 1241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8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는 생산유발 2조 1247억 원, 부가 가치 유발 7436억 원, 고용 유발 1만 9664명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기업은 충남 발전의 동력으로,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2021년 에스케이(SK)이 노베이션에서 분사한 에스케이(SK)온은 지난해 매출액 7조 6000억 원을 올린 글로벌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산 공장이 가동 중이다.

/투자통상정책관 041-635-3359

공공기관 충남본부·지사 분리·독립 ‘첫 결실’

충남도-도로교통공단 업무협약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독립 천안·아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충남교통방송 조기 개국 추진

충남도가 ‘충남 관할, 대전 소재’ 공공 기관 본부·지사 분리·독립 및 충남 유치 첫 결실이자,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올렸다.

도는 8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로교통공단과 ‘도민 교통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충남지부를 대전에서 분리해 설치하고, 도내에 1개 뿐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북부권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국 허가를 받은 티비엔(TBN) 충남교통방송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충남교통방송 건립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충남과 대전은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고, 도청은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 했으나,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충남교통방송국 건립예상도.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 대응력 약화 ▲업무 혼선 초래 ▲지역 본부·지사 이용 도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 ▲도정 연계 사업 시행 시 관리 청 이원화에 따른 정책 소외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도는 관할 행정구역 불일치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주리고,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해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천안·아산 지역에 신설키로 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 명의의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각 공

공기관에 전달했으며, 김기영·전형식 도 행정·정무부지사는 직접 공공기관 본사를 찾아 22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도로교통공단은 유치 대상기관 중 한 곳으로, 공공기관 충남본부·지사 분리·독립의 물꼬를 뚫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천안·아산 지역에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예산시 등 원거리로 이동해야했던 천안·아산, 경기 남부, 세종권 230만 인구의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

신설 운전면허시험장은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시험 시설 등 최첨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충남지부 분리와 충남 북부 운전면허시험장 설치 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289억 6000만 원을 투입해 7512m²의 땅에 건축연면적 2989m², 지하 1·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오는 10월 첫 삽을 뜯 뒤, 2025년 방송국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티비엔(TBN) 충남교통방송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2025년 2월 방송국 설립을 확약하는 자리”라며 “충남에도 하루빨리 충남교통방송 국이 건립돼 충남 전역 교통 상황 및 재난 상황이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보관 041-635-4911

도정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도정 목표

-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

지면안내

도민참여숲 조성 모금	3면
격동의 충남 100년	8면
2023대백제전 소개	9면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12면
도의원 인터뷰 ‘동행’	15면



충남형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도축·육가공·분뇨처리 ‘원스톱’
보령·서천·당진 간척지 대상
“양돈농가 이동 환경문제 해결”

충남도는 8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융복합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계획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을 위해 마련했다.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지역별 산재한 양돈농가를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동시켜 축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축산단지 조성 대상지는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와 당진 석문간척지이며, 스마트 축사와 분뇨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을 구축하고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북대·공주대·세민 환경기술 컨소시엄을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등을 살피고 간척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용역을 수행 중인 전북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업회사법인 피그랜드가 축산 바이오 에너지 및 비료 생산·활용을 통한 산업 융복합 모형(모델) 등 ‘양돈 탄소중립 및 산업 융복합’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도출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해 현재 추진 중인 용역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축산과 041-635-4101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충남도는 8월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순운 선열·애국지사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이번 경축식은 유공자 표창, 경축사, 만세삼창, 특별전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흠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선열들의 치열했던 독립투쟁은 마침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줬다”라며 선열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운영지원과 041-635-2335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조 원 지원

소상공 자금지원 3000억→5000억
“도민에 지원책 적극 홍보할 것”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28개 사업에 1조 원을 지원한다.

도는 8월 21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도지사-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자차액 보전과 대출금 상환유예 등 1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골목상권에는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위기기업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신설해 긴급지원한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각 단체는 ▲소상공인 법률 및 교육 지원 ▲소상공인 사기 진작 ▲전통시장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소상공인 법률 자문 지원 연계 및 민간 표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전

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혁신 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3월 ▲판로 ▲경영·시설 ▲수출 ▲고용 ▲농업 6개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했다.

중점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취약계층·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기업종 긴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신규 고용 창출 ▲농업 부문 유류대·전기요금 인상분 등이다.

/경제정책과 041-635-3314

11개 기관·단체 수해 복구 동참

기부금 1억 4200만 원 전달

충남도는 8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11개 기관·단체로부터 수해 복구를 위한 지정 기부금 총 1억 4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기부금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로 전달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 받은 도민을 위한 생필품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연재난과 041-635-3251

※기관별 기부금 규모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5100만 원 ▲대한간호협회·충청남도간호사회 1500만 원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1250만 원 ▲기계

설비건설공제조합 1000만 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1000만 원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1000만 원 ▲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1000만 원 ▲충청남도 4개 의약단체 연합(충청남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충청남도치과의사회·충청남도한의사회·충청남도약사회) 1000만 원 ▲충남세종지구 청년회의 소 500만 원 ▲클로엔성형외과 500만 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350만 원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유치 공동 대응

공모 앞두고 각 기관 역량 결집

충남도와 흥성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이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유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도는 8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흥성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서부발전(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센터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은 2026년까지 총 4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장비구축을 위

한 시험·평가동과 사업화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업지원동 등 2개동을 건립한다.

시설은 청정수소(수전해 등) 부품, 수소 활용 분야 등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장비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에 사업 추진 의지를 알리고 동시에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수소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소융합대학원을 센터 내 유치하고, 여기서 육성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수소관련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치에 성공하면 국내·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시험연구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수소 관련 기업의 청정수소 생산·활용·인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69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수소 국제포럼 준비 ‘착착’

보령서 10월 26~27일 개최

올해 포럼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보령시 미드테마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이창현 단국대 교수 등 수소 포럼 준비위원들은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개최되는 만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꼼꼼한 준비를 통해 수소경제사회 구현 및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68

힘쎈충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조원 기금지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3천억원 → 5천억원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전부를 대상으로 지원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골목상권

6백억원 추가 지원

플라스틱 제조 등 위기기업종

특별 경영안정자금 1백억 원 신설

1회 용품 사용·반입 금지 15개 시군으로 확대

탈플라스틱 전환 본격화
도 산하 공공기관 동참키로

충남도는 9월부터 '탈 플라스틱 전환' 정책이 1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31일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해 도와 시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청 중심의 1단계에 이어 시군까지 확대하는 2단계를 본격 추진한다.

시군은 9월부터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청사 조성, 시군 설립·운영 공공기관·장례식장·영화관·운동경기장 1회용품 제공금지, 1회용품 없는 행사 전환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 매달 10일은 '1회용품 없는 날' 지정 및 캠페인 전개, 플라스틱 감축 홍보·교

육 확대 등 범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은 오는 11월 3단계 범도민 확산에 앞서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탈 플라스틱 전환 정착 및 범도민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는 탈 플라스틱 전환 확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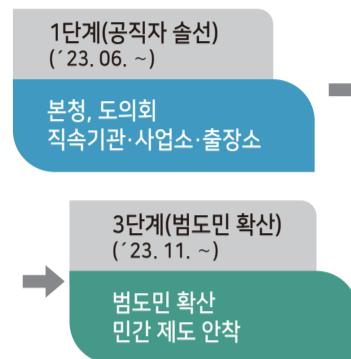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은 음식물 포장·배달 급증 등으로 1회용품 사용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도는 6월 19일부터 1단계로 도청내 1회용품 반입·휴대 금지 및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커피전문점도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을 추진했다.

탈 플라스틱 전환 이후 6~7월 도청과 도의회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17.6m³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8m³ 대비 34.3%(9.2m³) 가연성 생

탄소중립 실천·확산

□ 추진체계 :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선도적 추진 → 도민 인식전환 유도



□ 공공부문 추진계획

청사 1회용컵 반입·휴대 전면 금지, 사무실·탕비실 내 1회용품 전면 금지 및 행사·회의시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등

활폐기물은 244.8m³ 대비 230.55m³으로 5.8%(14.25m³)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은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실천이 더욱 중요한 만큼 지금의

나와 미래세대를 위해 탈 플라스틱 전환에 전 도민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9

'도민 참여 숲' 모금 시군 힘 모은다

도·시군 공감대 확산방안 논의 목표 100억 원 조기 달성 노력

충남도가 도민 참여 숲 조성 모금액 목표 100억 원 조기 달성을 위해 시군과 적극적인 공조 활동에 나선다.

도는 8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민 참여 숲 현수 모금 참여문화 확산 및 원활한 참여 방법 안내를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관련 참여 홍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시군별 홍보 대상과 홍보 방법 등 도민의 많은 참여와 공감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도·시군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도민이 이번 도민 참여 숲 조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관련 홍보 물을 배포하고 현수막 게시, 지역 소식지 활용, 캠페인 등을 추진해 관심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도민 참여 숲 기부금 모금은 홍예공원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계좌로 헌금을 모금하고 느티나무·단풍나무·



홍예공원 전경.

참나무·목련·은행나무·이팝나무 등 나무 1000그루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그동안 출향인사와 항우회를 직접 찾아가 도민 숲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같은 날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유치단 041-635-3389

김태흠 지사, 앤 고어와 탄소중립 논의

기후 현실 프로젝트 참여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소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후 리더십 교육'에서 앤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등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8월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후 리더십 교육은 앤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설립한 '기후 현실 프로젝트(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은 ▲기후대응정책 및 추진성과 ▲재생에너지 확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대처방안 및 협력계획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참가자들에 대한 핵심 메시지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탄소중립 구현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앤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선물을 교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끌어내고자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기후 리더십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옹호와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 해결방안과 지식,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 전 부분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과제와 방법을 알리고, 에너지 전환·노력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탄소중립정책과 041-635-4421

충남도민숲 조성 공동모금

도민의 참여로
홍예공원이 탄소중립 명품공원으로 거듭납니다



충남도민숲 조성

모두를 위한
나의 나무를 기부해요

참여기간 | 2023년 8월 ~
2025년 3월
참여방법 | 전용계좌 기부

도민참여 전용계좌 | 농협 301-0313-5905-61

한국환경재단
대한민국환경재단



충남도민 참여 숲 조성,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공원 내 구조 개선, 디자인 혁신을 통해
홍예공원을 탄소중립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민참여 문의처

충청남도 공공기관유치단 전화 041-635-3389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화 041-635-0340

한국환경재단
대한민국환경재단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5개 시도 머리 맞대

〈충남·부산·인천·강원·경북〉

시도간담회 개최 방안 논의 기본공급약관 개정 등 과제

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5개 시도가 실현 있는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8월 8일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관계자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6월 14일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딥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시행과 관련 아직 넘어야 할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도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기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시도별 정책·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실현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추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5개 시도는 실현성 있는 요금제 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 제안 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음식물쓰레기 먹는 ‘동애등에’ 대량사육 연구

한 쌩이 2~3kg 음식물쓰레기 처리 섭취·분해 후 비료 원료로 활용

충남도가 음식물쓰레기를 먹어치우며 고품질 동물용 사료 등으로 가공·판매되는 아메리카동애 등에(동애등에) 유충을 대량 사육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에 따르면 동애 등에 애벌레는 강한 소화력을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해 턱월한 환경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동애등에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기 전 15일 동안 섭취·분해하는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먹이원은 2~3g이다.

동애등에 암컷 성충 한 마리가 1000개의 알을 낳는 점을 감안하면, 동애등에 한 쌩이 2~3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셈이다.

음식물쓰레기 7kg에 동애등에 애벌레 5000마리를 투입하면 3~5일 만에 음식물쓰레기 부피는 58%, 무게는 30%가량 감소한다.

동애등에 애벌레가 분해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도 산업곤충연구소는 지난해부터 ‘아메리카동애등에 사육을 위한 대체 먹이원 개발 및 대량 사육 환경 개선’ 연구를 추진 중이다.

내년에 업체와 대량 사육을 위한 환경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곤충연구소 한국인 연구사는 “도내 농가에 보급, 동애등에 산업화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동애등에는 알과 유충(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완전변태 과정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326

도정게시판

2024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유치

충남도는 국내 최대 규모인 ‘2024 전국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KeG)’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추진하는 e스포츠 결선대회를 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2013~2014년 천안시 연속 개최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대회 유치에 따라 내년 8월 24~25일 선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게 된다.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선수와 대표단, 침관객 등 약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게임 콘텐츠 산업발전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강관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e스포츠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 유치는 충남이 게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정책과 041-635-3823



충남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국무총리상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도 대표로는 자체 품평회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내놓은 무궁화 분화 70점 중 수형 및 개화 상태가 우수하고 특징이 있는 분재 45점을 선발, 이번 전국 품평회에 출품했다.

또 추가로 소형 무궁화 분재 20여 점도 함께 전시했다.

도의 출품작들은 품종 고유의 특징, 수형 및 생육 상태, 꽃의 색상 등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품평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무궁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도내 무궁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과 041-635-4514

차 부품 세계화 지원센터 개소

충남도 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신규 해외판로 개척 및 거래선 다각화를 이끌어 갈 ‘충남 세계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8월 17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천안)에 위치한 세계화 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화 지원센터는 도내 부품기업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주요 기능은 센터 내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지원 등이다.

세계화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산업육성과(041-635-2253) 또는 충남테크노파크(041-569-5116)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육성과 041-635-2253

LIVE 충청남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년 충청남도 장애인 재용박람회

9월 13일(수), 14:00 ~ 16:00

아산시민체육관 (아산시 신정로 685)

온라인 병행 진행 9월 13일(수) ~ 10월 6일(금) job.cnnrec.or.kr

행사구성 ·사업체 현장 채용면접 ·장애인 보조기기 전시, 장애인 생활용품 전시, 장애인 웹툰 작품 전시 ·권익옹호상담, 보건의료상담, 장애학생 취업지원상담

문의전화 041)856-7071~2

이메일 job@cnnrec.or.kr

주최·주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기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발행인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충남도정



잼버리 대원들이 충남도립대에서 공연 등을 관람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잼버리 대원들이 당진 신성대에서 줄꼬기 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 떠난 잼버리 대원들 '충남의 멋' 만끽

줄다리기·태권도·도자기 체험
김태희 지사 감사 서한문 전달

충남도 내 7개 시군에 분산 배치된 4000여 명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도내 곳곳에서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스웨덴, 세네갈, 카메룬 등 25개국 4000여 명의 대원들이 7개 시

군 17개 시설에 분산 배치돼 머물렀다. 도는 폭염 등으로 정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확대 운영을 결정함에 따라 대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보령머드축제, 공주·부여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도내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천안에 머문 잼버리 대원들은 실내 워터파크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고,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관람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폈다.

대원들은 또 케이(K)-팝 공연과 성악 4인 양상불을 관람하고, 태권도 프로그램과 도자기 만들기, 항공 안전 체험 등도 가졌다.

공주 잼버리 대원들은 케이(K)-팝 댄스를 배우고, 도자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을 체험하며 대한민국의 과거·미래 기술을 함께 만났다.

아산에서는 태권도, 경찰견, 심폐소생술 및 체포술, 시뮬레이션 사격 등 '경찰타운'이 위치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체험을 가졌다.

당진 대원들은 줄다리기·줄꼬기 체험, 비빔밥·쿠키 만들기 체험 등을 갖고, 보령에서는 한맥예술단 특별공연과 케이(K)-팝 공연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논산 잼버리 대원들은 국악 및 클래식, 영화 극한직업, 국악 공연 등을 관람했으며, 청양 대원들은 브레이서바이벌 레크레이션을 경험하고, 아르티스 케이(K)-팝 공연을 즐겼다.

김태희 충남도지사는 8월 14일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써준 도내 기관·기업·대학·공무원 등에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숙소(기술사·연수원) 지원, 의료(의사·간호사 파견) 지원, 생필품·식료품 후원 체험 프로그램 지원봉사 등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신 각 기관·기업·대학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3~4

청년 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 개최

9월 15일 천안시민체육공원
공연, 토크콘서트, 이벤트 '나채'
온라인 0원 티켓팅 접수 예정

충남도와 천안시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축제의 장을 연다.

도는 제4회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9월 15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2023 청년 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재능과 끼를 펼치고 소통·공감·참여·놀이할 수 있는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의 시간·공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메인 무대는 3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지역 청년 예술인 공연 및 웰컴 레크레이션은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를 주제로, 지역 청년 예술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공연이 펼쳐진다.

2부는 강연형 토크 콘서트로 각 분야의 멘토가 출연하여 TED 형식의 강연과 더불어 청년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3부 공연형 토크콘서트에서는 '중요한 건 격이지 않는 마음'을 주제로 공연과 대화를 잇는다.

이 자리에는 ▲가수 초승 ▲다나카로 유명한 개그맨 김경욱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인 개그우먼 엄지윤 ▲WSG 위너비 이보람 ▲쇼미더머니 스타 프

로듀서 겸 가수 자이언티 ▲스트릿우먼파이터 아이키&흙 등이 출연한다.

축제는 별도의 좌석 없이 잔디밭 광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온라인 '0원' 티켓팅 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신청자들을 위한 좋은 자리를 따로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0원 티켓팅 시스템을 통한 참여 신청 방법은 도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피크닉 형식으로 뜯자리와 먹거리 등은 참여자가 준비해야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정책과 041-635-3986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 환영

프란치스코 교황, 개최지 서울 발표

충남도는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한국 개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6일 오전 9시(현지시간) 리스본 테주 공원에서 3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37차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파견미사를 마치며 대한민국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했다.

도내에는 5만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도는 2027년 천주교 세계 청년 대회에 맞춰 2026년까지 도내 천주교 유산을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청년대회 행사장 조성 등 해미국제성지 재(re)-디자인 ▲도내 천주교 유적 및 순례길 정비 ▲방문자 센터 등 시군별 거점시설 기반 확충 등이다.

충남은 가톨릭 청년대회와 관련이 깊은 곳으로, 2014년 당진 솔뫼성지와 서산 해미순교성지 일원에서 가톨릭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2~3년마다 모여 서로의 신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문화유산과 041-635-2456



아름다운 숲길을 거닐며 백제를 만난다

무령왕 서거·성왕 즉위 1500주년, 찬란한 백제 역사 속으로
22)부여 부소산성①

이제 부소산성 안으로 들어가 볼까 요. 부소산성은 위급할 때에 왕궁의 방어시설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본래 목적은 백제 왕궁의 후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백제왕처럼 부소산성 내부 정원을 거닐어 보겠습니다. 부소산성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아름다운 소나무 숲길'입니다. 모르셨죠?

여기서부터 부소산성 소나무 숲길이 이어져요. 부소산성은 숲과 유적지가 함께하는 백제 정원입니다. 아름다운 숲길이죠. 소나무가 만들어 준 그늘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가끔 부는 바람이 땅을 허여주어 오늘 같 은 더운 날씨에도 산책하기 어렵지 않아요. 소나무 숲길이 너무 아름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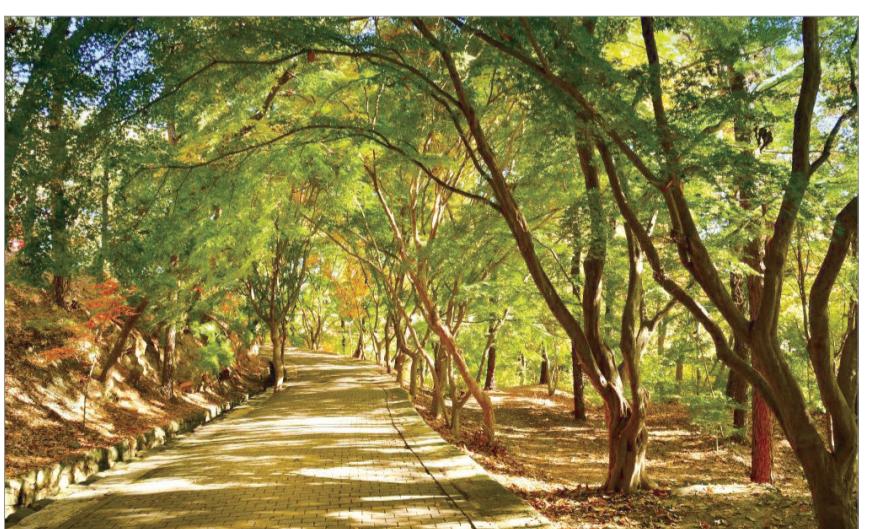
지 않으세요. 이 길을 따라 중간중간 있는 백제유적도 만나면서 걷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부소산성은 '백제 문화의 보물창고(寶庫)'라고 불려요. 이 안에 수많은 백제 여인이 꽃잎처럼 떨어져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낙화암, 백화정, 사자루, 반월루, 궁녀사, 고란사, 해맞이 하는 영일루, 성종·흥수·계백 등 백제의 충신을 모신 삼충사, 백제사찰 서복사지, 곡식 창고터였던 군창지, 백제 군사들의 병영터로 추정되는 수혈병영지 등 빛길 닿는 곳마다 백제의 역사와 백제왕실의 이야기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소산성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부소산성은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가장 흥미로운 성과는 동문지 부근에서 출토된 '대통(大通)' 이란 글자가 써힌 인각기와편의 발견이에요. '대통' 어디서 들어보셨죠? 맞아요. 공주에 있는 대통사지예요! 그래서 대통사지에 사용되었던 기와가 부소산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소산성은 사비천도 이전인 527년 대통사 건립 전후에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발굴된 기와편 하나로 사비도성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답니다. 재미있죠.

이야기 하다가보니 '삼총사'에 도착했네요. 잠시 들어가서 묵념하고 올까요. 여기 모셔진 성종, 흥수, 계백은 백제 멸망기 충신입니다. 성종과 흥수는 의자왕에게 직언하여 옥에 갇히거나 유배되었고,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묵념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충청이는 나



부소산성. /백제세계유산센터

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했어요. 성종, 흥수, 계백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을까요. 여러분들 중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독

립운동을 직접 나서서 하셨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건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분들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여름밤 달군 ‘천안 K-컬쳐 박람회’

올해 첫 선… 총 13만 명 방문
2026년 세계박람회 개최 목표

올해 첫 선을 보인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에 13만 명이 다녀갔다.

시에 따르면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박람회의 방문객은 13만 571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K-컬처의 역사와 미래 가치를 아우르는 전시·공연·체험·산업포럼 등을 선보였다. 박람회 기간 독립기념관은 최초로 야간 개장하고 겨레의 탑에 구현된 대형 미디어 파사드는 다양한 문양의 영상미를 제공하며 여름밤 무더위를 잊게 했다.

웰컴존에서는 취타대, 국악, 클래식, 민요 등 풍부한 콘텐츠가 입구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고, 천안청년예술인페스티벌은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3.1 문화마당은 재즈 페스티벌, 천안 외국인축제를 진행해 박람회장 곳곳을 풍성한 K-컬처로 물들게 했다. 천안문화도시페스티벌에서는 미디어아트 전시,



K-뮤지컬 콘서트 모습

공예체험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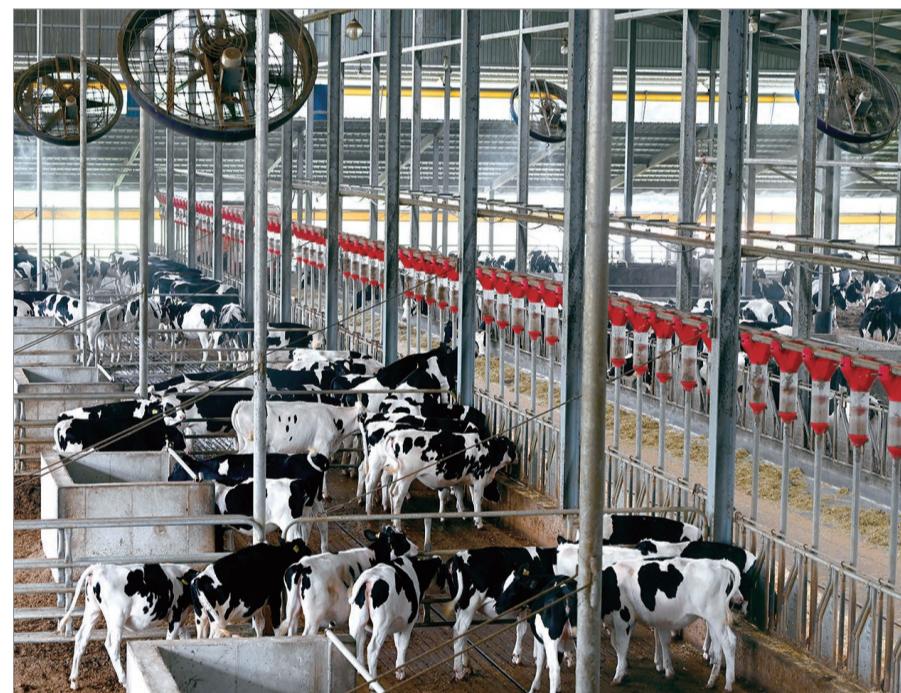
천안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지역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2026년 세계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국제 행사 승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K-스포츠, K-게임, K-힐링·관광 등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특수 분류 체계와 한국국제문화교

류진흥원에서 분류한 다양한 K-컬처를 아우르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더 보완하고 다듬어 매년 지역박람회를 개최, K-컬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세계 박람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의 힘이 천안을 넘어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음매~ 더워요”

폭염특보가 발효됐던 8월 7일 충남 홍성군 한정소 농가에서 축사 열기를 식히기 위해 대형선풍기와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과 성장이 부진하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홍성군 제공

안면도의 추억

독자투고

태양의 열기가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주 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 이사님들과 안면도를 찾았다. 안면읍 중장리 두산목장 옆에 있는 이사님의 고향 집은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아담한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다.

필자가 태안군청에 근무하던 34년 전에는 두산목장은 초지면적이 550여 ha에, 소·돼지 합해서 40여 천 마리가 넘게 사육되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단일면적으로는 국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어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

다. 국비와 군비 등 61억원을 들여 태안군 최남단인 고남면 고남리에 아파트 20층인 51m 높이에 연면적 576.12m² 규모로 지어져 태안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곳이다. 전망 타워와 특산물 판매장, 휴게음식점 등 지역 주민과의 상생 공간도 들어서 있었다.

전망대 외형은 단순 일자형에서 벗어나 태안 바닷가에 자생하는 해당화의 꽃잎을 형상화해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태안의 수려한 경관과 낙조를 배경으로 전망층, 바다 경치를 볼 수 있는 2층 테라스 등 다양한 휴게 공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돋보였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희망의 뱃고동 소리를 힘차게 울려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풍요와 융성의 상징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태안의 수려한 경

관과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전망층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사진을 찍었다. 원산안면대교와 보령 해저터널이 완공되면서 단절됐던 국도 77호선의 퍼즐이 완성됐다는 의미도 더했다.

전망대를 뒤로하고 우리는 꽃다리로 유명한 방포로 자리를 옮겨 전복탕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해안도로를 따라 태안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안전하게 귀가했다.

/최병부 (사)한국문인협회 서산지부장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원고 보내는 곳 : deun127@korea.kr
문의 : 041-635-4932
 *도정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보령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

1.3km 3300원→1.2km 4000원

보령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3km 3300원에서 1.2km 4000원으로 4년 만에 인상된다.

시는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변경하고 시하고 8월 19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이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4년간 유류비가 37.1% 인상되고, 최저임금 9.7% 상승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택시업계의 입장과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과 지난 7월 충남도의

택시 운임 기준 조정으로 보령시 택시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부연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 1.2km에 4000원,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대형·고급택시의 경우 기본요금 3km에 6000원, 거리요금은 99m당 2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200원이다.

심야활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 할증이며, 사업구역 외 활증은 32%이다.

시는 택시요금 변경사항을 교통요충지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택시 운전사와 이용객의 마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령시 제공

태안 ‘향기 테라피’ 연구 돌입

해송·해조류 등 활용 향 개발 해양치유센터 시제품 활용

태안군이 ‘향기 치유’를 통해 해양치유의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제시한다.

내년 서해안권 유일의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군은 8월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및 군의원, 자문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치유자원 상용화 연구용역(2차)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그니처 향(에센셜 오일)’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연구용역은 천연 유기물 ‘피트’를 활용한 상용품 및 시제품 개발 성과를 거둔 1차 상용화 연구용역(2022년 4월~2023년 4월)의 후속 절차로, 군은 내년 7월까지 1년간 태안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향 3종 개발

예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향기 치유’는 해양치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군은 태안반도가 바다 및 습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풍부한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활용한 ‘태안만의 향’ 개발을 준비해 왔다.

군은 에센셜 오일 개발이 마무리되면 내년 개관하는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향기 테라피를 선보일 예정이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한 후 제품개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편, 군은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남면 달산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543m² 규모의 ‘태안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제1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 개최

송림산림욕장서 25일 개막

제1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보랏빛 물결, 기쁨의 연속’ 이란 주제로 장항 송림산림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장항 맥문동 꽃

축제는 전국 최대 맥문동 군락지인 장항 송림산림욕장을 배경으로 바다, 하늘, 꽃을 동시에 감상하며 고즈넉한 서해의 풍광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천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송립숲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는 한편 지역민의 소득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꽃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축제 운영방향 설정과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맥문동을 활용한 음식 개발 등 내실있게 준비해 왔다.

25일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개막선언과 함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26일에는 음악회 맥문동 꽃밭에서를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역단체 동아리 공연과 농촌체험교육농장, 농특산품 홍보 판매전, 먹거리 체험부스 등 맥문동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장항 송립산림욕장은 18만m² 규모의 소나무 숲에 600만본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맥문동 꽃밭이 조성돼 있어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서천군 제공



꽃 축제가 열리는 장항 송림산림욕장에 만개한 맥문동

금어기 풀린 태안 꽃게잡이…출항 첫날 6톤 수확

평년 대비 10~20% 가량 저렴
추석 한 달 앞두고 ‘인기 예감’

태안의 상징이자 태안반도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금어기가 21일부터 해제돼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했다.

태안군의 대표적인 꽃게 산지인 안면읍 백사장항에서는 21일 자정부터 꽃게잡이 어선이 일제히 바다로 출항하며 올해 가을 꽃게잡이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백사장항에서의 총 꽃게 수확량은 6톤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난해 가을꽃게 금어기 해제 첫날 수확량인 5톤 대비 늘어난 것으로 올해 꽃게잡이 풍년을 기대하고 있다.

백사장항 위판장에서는 1kg당 숯꽃게 7천 원, 암꽃게 8천 원 선에 위판가가 형성됐으며, 이는 첫날 기준 평년 대비 10~20% 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올해 추석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

큼 명절 선물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 꽃게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며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고 특유의 반점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는 특징이 있으며, 태안에서는 간장게장과 계국지 등 지역색이 풍부한 꽃게 음식을 저렴하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꽃게의 ‘타우린’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망막 형성과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알코올 해독에도 효능이 있으며 심장과 간 기능을 강화하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꽃게는 지역의 상징이자 대표 수산물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 가을에도 꽃게 대풍이 들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태안의 상징이자 태안반도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금어기가 21일부터 해제돼 본격적인 수확에 돌입했다. 사진은 21일 안면읍 백사장항 위판장의 꽃게 모습.

백종원 매직 ‘3탄’…맥주 맛 보러 예산으로

9월 1일~3일 예산시장서
2023 맥주 페스티벌 개최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가 손잡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산시장 일원에서 ‘2023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는 더본코리아가 개발한 ▲예산사과 맥주 ‘애플리어’ ▲제주감귤 맥주 ‘감귤오름’ ▲상주 배 맥주 ‘꿀배버블’ ▲영동 포도 맥주 ‘포도버블’와 빼라거 등이 선보인다.

또한 안주류로는 특수제작한 화덕 8구에 18시간을 구워낸 통돼지바베큐와 5시간을 직화로 구워낸 돼지 모둠바베큐와 닭바베큐, 닭꼬치, 컵화채 등 다채로운 음식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군과 더본코리아는 이번 행사에 1일 1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Z 세대들을 위한 무대공연과 현장 참여 이벤트, 엔터존, 여성 전용 화장실 등을 설치했으며 예산시장과 예산역, 예산터미널, 덕산온천을 왕래하는 셔틀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주류판매를 위한 18세 성인인증 및 바가지 요금에 대비한 저렴한 가격



2023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음식과 맥주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종원 대표는 “예산시장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회기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군과 협업하여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시장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구 군수도 “예산시장 창업개장을 한 지 6개월여만에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찾아 주시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

아나고 있어 매우 뿌듯하고 깊이 감사

드린다”며 “이번에 더본코리아와 최초로 개최하는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재방문해 주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과 더본코리아는 이번 맥주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제7회 예산장터 삼국축제 기간에 열리는 제2회 예산글로벌푸드챔피언십 요리대회와 제13회 대한민국 명주대상과 명주 페스타도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군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림사지’ 담장 낮춘다

조망권·가시성·접근성 등
12월까지 관람환경 개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정림사지 담장이 대폭 낮아진다.

충남 부여군은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림사지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월 21일 밝혔다.

그간 정림사지는 높은 담장으로 부여 도심에 있으면서도 주민들의 조망

권, 가시성, 접근성 등 관람환경이 저해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정림사지 경관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6월 착공했다.

현재 의열로의 조적 담장은 철거를 마무리했고 정림사지 구간 토석 담장은 낮춰 철거를 끝냈다. 추후 낮춰진 토석 담장에 기와를 설치해 최종 담장 높이 1.2m로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부여군 제공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랜드마크로 재탄생

소각시설 굴뚝 전망대로 변경

충남 서산시가 양대동 827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는 8월 8일 ‘2023년 제1회 경관위원회’를 통해 소각시설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키로 했다. 굴뚝전망대는 2025년 준공예정이다.

굴뚝전망대는 도비산, 가야산, 간월

호 철새도래지 등 서산의 주요 관광지와 야경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굴뚝과 동일한 94m 높이로 조성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망대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3월에는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고 6월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건축물 설치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

/서산시 제공

‘성·재생산권’과 저출산 대응 정책

율 1.59명으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이다. 2004년부터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전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남녀의 평등의식이 향상되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여 비혼과 만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의 관련 정책은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한 모성의 건강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왔다.

다행히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정책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우리에게 아직은 낯설고 이름조차 생소한 ‘성·재생산권’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성·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은 1994년에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된 인권보호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의 하나

로서 개인이 어떠한 강압이나 차별, 폭력 없이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가질 여부와 시기·방법·자녀의 수 등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생식기관의 기능 및 발달에 있어 질병, 기능저하 또는 장애로 인해 고통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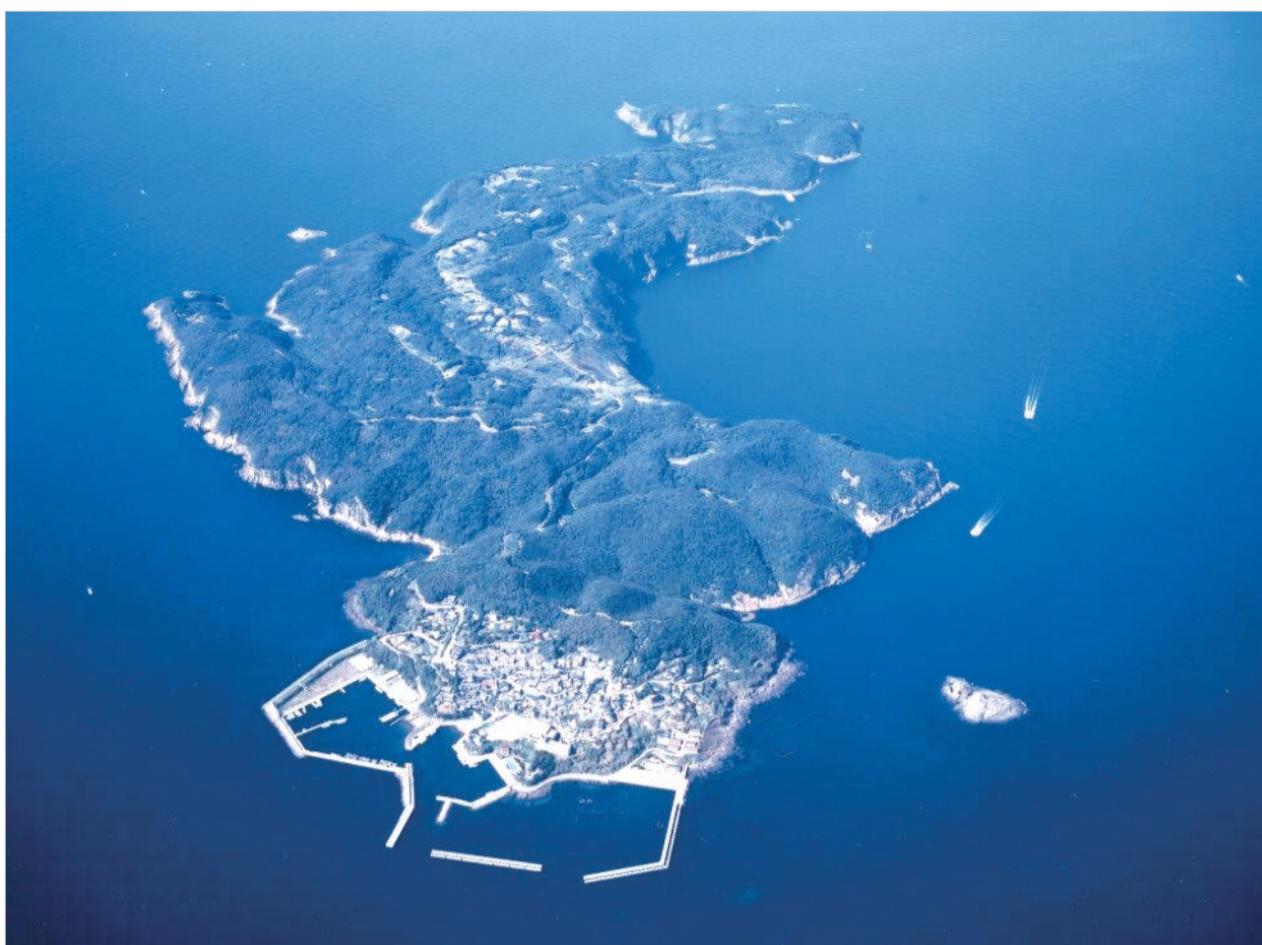
국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추진 사업으로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 월경, 피임, 생식기 질환, 임신의 유지·종결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치료지원에 나선다고 하였다. 아울러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성·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에게만 집중되어왔던 관련 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인정과 보장이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남성을 포함하고, 청소년기 등 우리 생애 전반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임우연



현재 한국 사회는 사상 초유의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였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균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



무령왕 탄생지(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 /사가현 공식사이트

가카라시마(加唐島)는 대한해협에 있고, 행정구역상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 속하는 섬이다. 백제 25대왕 무령왕이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섬으로 무령왕의 탄생지와 탄생기념비가 있다.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 전경. /사가현 공식사이트

무령왕은 왜 日本에서 태어났을까?

격동의 충남 100년



무령왕릉 발굴비사①

백제, 일본에 문화 전파 교류 활성화
무령왕 탄생설화 가카라시마서 태어나
이름은 '사마' 훗날 귀국해 왕위 등극
음력 6월 1일 일본서 무령왕 탄생제

류의 역할도 도외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일본 역사에까지 큰 족적을 남긴 무령왕은 어떤 인물인가? 9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강국을 이루었던 무령왕을 생각하고 아울러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의 숨은 이야기를 되돌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기 475년, 백제 개로왕은 고구려를 보낸 첨자 도림의 꿈에 빠져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지나친 토목사업으로 국력을 소비한 끝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무참히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그 동생 문주왕이 왕위에 올라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공주(웅진)로 도읍을 옮긴다. 하지만 문주왕은 공주에 온지 2년만에 병관 좌평 해구라는 토후 세력에 의해 암살을 당하고 만다. 백제가 공주로 도읍을 옮길 즈음에는 귀족과 토후 세력이 막강하여 왕권이 위축되어 있었고 귀족들 사이에도 알력이 심했다. 문주왕이 암살되자 13세의 왕자가 왕위에 오르니 삼근왕이다. 그런데 이 무슨 변고인가? 삼근왕이 15세가 되면 해 또 암살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문주왕의 동생 곤지(昆支)의 아들이며 암살로 죽은 삼근왕의 사촌인 동성왕이 즉위한다. 그러나 동성왕 역시 한창 왕권강화와 국방에 힘쓰던 중 백가라는 귀족에 의해 살해당한다.

즉위하는 왕마다 몇 년 안되어서 모두 시해를 당하는 불안한 정세속에 무령왕이 40세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 때 神으로부터 땅을 산다는 매지권(買地券)이 나왔는데 여기에 무령왕의 생년월일, 사망일이 기록돼 있었다. 그 결과 무령왕의 동생 동성왕이 먼저 즉위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왜 동생이 먼저 왕위에 올랐는지는 미스터리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개로왕이 살아있을 때 고구려 공격에 몰리게 되자 동생 곤지를 일본에 보내 구원병을 청하게 한다. 곤지는 일본으로 떠나면서 왕이며 형님인 개로왕에게 왕비를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왕비는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도 형수이며 왕비인 임신한 여인을 굳이 동행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사연일까? 학자들은 이에 대해 곤지가 왕비와 몰래 사랑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야기한다. 벳 속의 아이도 곤지의 아들일 것이고 그래서 왕은 이들을 일본으로 추방을 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왕이 왕비가 출산하면 아기는 돌려달라는 조건으로 이들의 출국을 승인한 것을 보면 임신한 아기는 개로왕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어쨌든 이런 미스터리 속에 곤지는 일본으로 가는 중 형수인 왕비가 심한 산기를 느껴 규슈의 가카라시마에서 아기를 낳았다. 곤지는 아기 이



백제 무령왕 표준영정. /공주시

무령왕릉은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1971년 처음 발굴되었다. 벽돌로 만든 무덤에서는 금제관식, 석수, 지석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령왕은 삼국시대 백제의 제25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01~523년이다. 이름은 사마 또는 융이다. 무령왕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으나, 1971년 공주 송산리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에 따르면 462년에 출생하였다. 무령왕 정권의 탄생은 동성왕의 시해라는 정변을 통해 이루어졌다. 501년 12월 위사자평 백가가 보낸 자객에게 동성왕이 시해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북방정책에 몰두하여 고구려·말갈 등의 침략을 무찌르고 대비책을 강화했으며, 중국 남조의 양과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펴다. 지배귀족들의 전횡을 막고자 좌평제를 폐지하고 22부사제로 행정체제를 바꾸었고, 백성들의 진휼에 힘쓰는 한편 수리시설 정비·확충과 호적체계 정비로 안정적 국가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빠았던 후 혼란에 빠진 백제를 안정시킨 왕으로 평가된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공주 시민들이 모금해 세운 무령왕 탄생 기념비(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 /동북아역사넷

름을 섬에서 났다 하여 시마군이라고 명명하고 형 개로왕과의 약속대로 배 한 척을 마련하여 백제로 보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 아기를 그 시절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보냈을까? 오히려 일본에서 장성하여 백제 왕들이 계속 암살되는 혼란이 계속되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 백제로 건너왔으리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하여 501년 왕위에 오르니 25대 무령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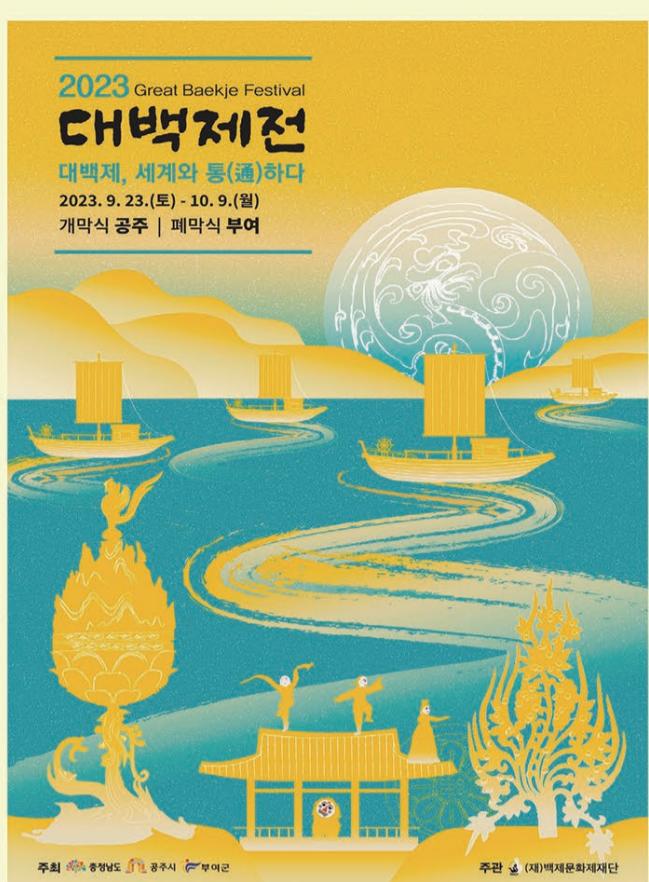
가카라시마(加唐島)에는 무령왕이 태어난 동굴이 있고 아기를 씻었다는 우물도 있다. 주민 200여명 밖에 안되는 작은 섬이지만 이곳 주민들과 가라쓰(唐津)시 당국이 이곳을 성지처럼 잘 보존하고 있다. 심지어 해마다 무령왕 탄생 일인 음력 6월 1일에는 무령왕 탄생제를 열고 무령왕을 추모한다. 이때는 공주시민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몇 해 전 필자도 이 행사에 참석했었다. 우리 일행이 탄 배가 섬에 도착하자 주민들과 학생들이 부두에 도열하여 환영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섬은 온통 동백나무 숲으로 뒤덮였고 일본에만 있는 금송도 잘 가꾸어졌다. 이 금송이 바로 무

령왕릉에서 발굴된 무령왕 관임이 과학적 분석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2006년에는 공주 시민들이 모금을 하여 이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처럼 가라쓰와 공주시와의 관계가 활발해 진 것은 아무래도 1971년 무령왕릉의 발굴이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어쨌든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에는 무령왕을 사마왕(斯麻王)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일본어로 섬을 뜻하는 '시마'와 연관이 있는 만큼 가라쓰 섬을 소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적으로 왕비를 데리고 이곳에 왔던 곤지는 일본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일본인들은 그를 신으로 모시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짜에 축제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상당한 세력을 누렸던 것 같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 기 간:** 2023. 9. 23.(토) ~ 10. 9.(월) / 17일간
※ 개막식(공주), 폐막식(부여)
- 장 소:** 충남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 주 제:**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
- 주요내용:** 개·폐막식, 공연, 퍼레이드,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 주최/주관:** 충청남도·공주시·부여군 / (재)백제문화재재단

2023 대백제제전 D-30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란 주제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리는 2023 대백제제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69회째를 맞는 대백제제전은 백제의 문화와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세대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와 첨단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미디어 아트관'은 '무령왕'과 '백제금동대향로'를 실감 콘텐츠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초월해 섬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현했다.

무령왕과 백제 평화의 여전사 계산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공산성과 사비성을 활용해 영상 맵핑, 조명,

음향, 레이저 등으로 연출한 '수상 멀티 미디어 쇼'는 대백제제전의 자랑거리로 꼽힌다.

해상왕국 백제가 교류를 맺었던 해외 국가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개국 공연단을 초청해 관람객들에게 백제의 위대한 기상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주시에서는 웅진판타지아, 웅진성 퍼레이드 등을, 부여군에서는 백제의 전투, 제불전 2023 다시보는 사비백제의 예(禮) 등 대표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내 13개 시군 문화예술공연단의 공연, 친환경 놀이터, 친환경 전시 및 체험 등 이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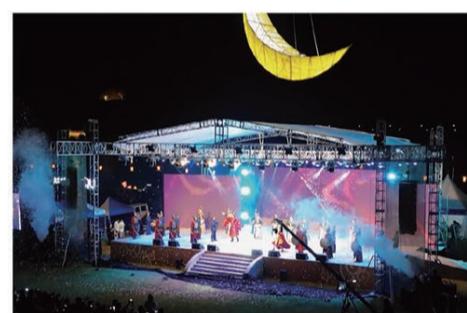
/도정신문팀

2023 대백제제전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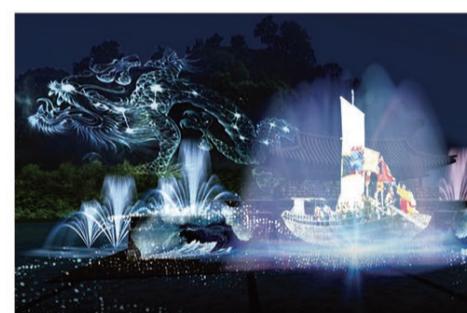
개막식

- 일 정:** 9.23.(토)
- 시 간:** 18:30 ~ 21:45
- 장 소:** 공주 금강신관공원 주무대
- 축하공연:** 백지영, 에잇던, 정동원, 양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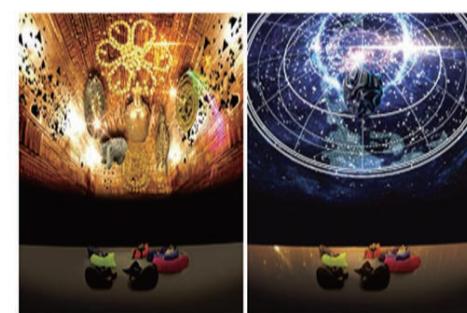
폐막식

- 일 정:** 10.9.(월)
- 시 간:** 18:30 ~ 21:45
- 장 소:** 부여 백제문화단지 주무대
- 축하공연:** 빌리, 송가인, 진성, 더원, 정동하



수상멀티미디어쇼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20시, 21시(1일2회)
- 장 소:** 공주 금강신관공원, 부여 백제문화단지



대백제제전 미디어아트관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10:00 ~ 22:00
- 장 소:** 공주 금강신관공원, 부여 백제문화단지



웅진판타지아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20:00 ~ 21:00 (총 5회)
- 장 소:** 공주 금강신관공원



웅진성 퍼레이드

- 일 정:** 10.1.(일) / 10.7.(토)
- 시 간:** 16:00 ~ 18:00
- 장 소:** 중동교차로-산성시장-연문광장



웅진백제 등불향연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10:00 ~ 22:00
- 장 소:** 공주 금강신관공원



무령의 빛, Symbol Light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19:00 ~ 23:00
- 장 소:**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제불전 2023, 다시보는 사비백제의 禮**
- 일 정:** 9.23.(토) ~ 10.9.(월)
- 장 소:** 부여 백제문화단지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19:00 ~ 20:00
- 장 소:** 부여 백제문화단지



백제 옛다리(부교)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10:00 ~ 21:00
- 장 소:** 부여 구드래~신리



사비골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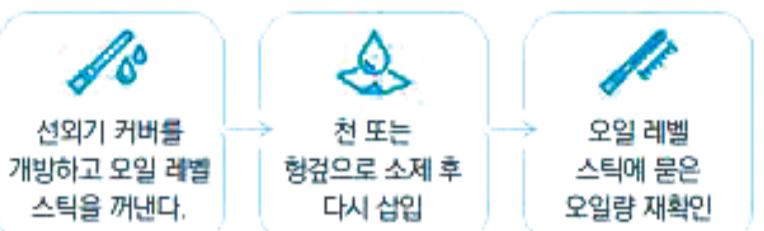
- 일 정:** 9.23.(토) ~ 10.9.(월)
- 시 간:** 10:00 ~ 21:00
- 장 소:** 부여 백제문화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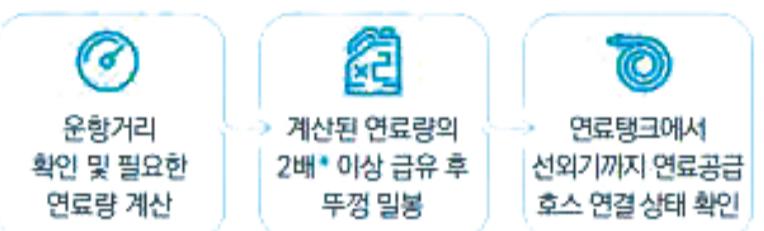
출항 전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9월 주꾸미 낚시 금어기가 해제되면 수상레저활동의 최대 성수기가 도래한다. 레저기구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고장의 경우 출항 전 점검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즐거운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 전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점검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엔진오일량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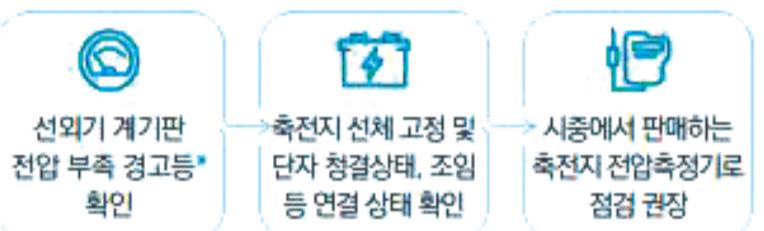


연료량 및 공급호스 상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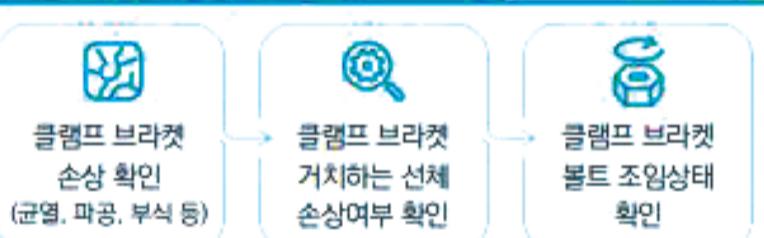
* F (Full) 선까지 가득 주유 권고

축전지 전압 및 연결상태 확인



* 레저기구는 거울동안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생어기(봄~가을)때 낚시 등 레저활동을 위해 다시 사용되므로 축전지가 방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축전지 점검 필수!!

선외기와 선체 결합상태 확인



글자 색깔 맞추기

맨 위에 있는 글자의 색을 설명하는 단어를 아래 두 개 중에 선택하세요.

주황	빨강	분홍
회색	주황	초록
초록	검정	파랑
검정	초록	검정
초록	회색	분홍
주황	초록	회색
회색	초록	검정
검정	분홍	검정

충남광역치매센터와 함께하는 치매예방 두뇌훈련 퀴즈

난이도 - 상 ★★★★☆

증진영역
선택적 주의 집중력, 문제 해결력, 정보처리 능력, 판단력
소요시간 10분 내외

일상생활 적용 영역
신호등 색 구별하기, 두 가지 이상의 음식만들기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실습생 고준형 학생이 제작하였습니다.

율곡 '율' '국' '국' '율'
눌고 '국' '국' '국' '눌고'
윤문 '눌고' '눌고' '눌고' : 윤문

일자리 정보

※문의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041-330-4972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지역	사업장	직종	인원	전화	급여
천안	(주)피스코코리아(본사)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2명	070-4914-5015	월 264만원 이상	논산	(주)신화	제조·생산 관리자	1명	041-742-9445	월 230만원 이상
천안	(주)삼신(본사)	영업 기획·관리·지원 사무원	1명	041-590-6000	연 2,800만원 이상	보령	(주)대영종합건설	건축 현장소장	2명	041-932-6104	연 6,000만원 이상
천안	(주)삼미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1명	041-557-5155	월 202만원 이상	보령	(주)제일사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41-642-1901	연 3,000만원 이상
천안	(주)알티자동화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5명	041-541-5580	연 3,700만원 이상	보령	한국전기충남공사	빌딩 전기관리원	1명	041-934-6006	연 3,000만원 이상
아산	(주)티아이앤티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544-3071	시급 9,620원 이상	보령	예성세무회계사무소	회계 사무원(회계·세무 사무소)	1명	041-936-1400	연 2,800만원 이상
아산	서영파일테크(주)(아산공장)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기계·자동차·금속)	2명	041-532-4344	월 290만원 이상	계룡	소이미푸드(주)	두부 및 유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명	042-841-2357	연 3,500만원 이상
아산	티앤에스산업주식회사	제조 단순 종사원	20명	041-427-5500	시급 9,620원 이상	계룡	계룡효센터(본사)	시설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1명	042-551-5629	연 233만원 이상
아산	유성기업(주)(본사)	공작기계 설치·정비원	1명	041-539-5007	연 3,200만원 이상	계룡	(주)마메든도어(본사)	기계·금속 분야 단순 종사원	3명	042-542-4008	연 2,900만원 이상
당진	화빈기계(주)(본사)	경리 사무원	1명	041-357-6287	월 230만원 이상	계룡	(주)유제이(본사)	제조 단순 종사원	10명	010-9239-9890	월 260만원 이상
당진	(주)경일엔텍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기계·자동차·금속)	1명	041-358-2318	월 300만원 이상	홍성	(주)화천(본사)	창고 관리원(자재 검수원 포함)	2명	070-7775-7369	월 210만원 이상
당진	(주)별표수세미(본사)	섬유 제조기계 조작원(병적방사·연사·흡사·권사기 등)	2명	041-356-6201	월 205만원 이상	홍성	농산개발(주)(본사)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1명	041-633-0164	월 300만원 이상
당진	(주)프로스탁(본사)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기계·자동차·금속)	1명	041-358-5854	연 3,600만원 이상	예산	주식회사코리아농기계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명	041-333-6488	월 210만원 이상
서산	(주)삼우(본사)	토목시공 기술자(토목견적, 공무포함)	1명	041-632-3004	연 3,000만원 이상	예산	유기산업(본사)	기타 제품 제조 관리자(공장장)	1명	010-2596-2462	연 3,500만원 이상
서산	성원산업(본사)	지게차 운전원	2명	031-351-7172	연 4,200만원 이상	태안	드르니오션리조트(본사)	호텔·콘도·숙박시설 청소원(룸메이드·하우스키페)	2명	(010-5772-1345)	월 250만원 이상
서산	(주)대한하이베링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041-666-0960	월 300만원 이상	태안	벽산엔지니어링(주)	소각로 조작원	1명	010-3205-3994	연 3,400만원 이상
서산	은성산업(본사)	자동차 부품 조립·검사원	2명	041-668-1350	연 3,500만원 이상	서천	가가케어요양방문센터(본사)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시설)	1명	041-953-8788	월 230만원 이상
공주	주식회사장승마을(본사)	경리 사무원(일반사업체)	1명	041-841-5220	월 250만원 이상	서천	(주)코츠(본사)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3명	041-956-8884	월 2,730만원 이상
공주	(주)동원레미콘세종(본사)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1명	041-960-5511	연 3,300만원 이상	부여	(주)우리면(본사)	자재·구매 사무원(음식료품)	1명	041-832-1571	월 230만원 이상
공주	대림전기(주)(본사)	경리 사무원(건설)	1명	041-853-2381	연 3,000만원 이상	부여	사자유통(한진택배부여)	택배원	2명	041-836-1213	월 260만원 이상
공주	(주)대산이노텍(본사)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1명	041-850-9705	연 3,000만원 이상	금산	에스디(주)(본사)	기타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041-752-6864	연 3,500만원 이상
논산	강경효사랑요양병원(본사)	간호조무사	1명	041-745-1500	월 250만원 이상	금산	두리산업(본사)	기구 조립원	1명	042-283-8236	월 220만원 이상
논산	행복드림영농조합법인	제조 단순 종사원	2명	041-745-0403	시급 10,110원 이상	청양	(주)보민환경(본사)	굴착기(굴삭기, 포크레인) 운전원	1명	041-943-7436	월 400만원 이상
논산	의료법인청죽의료재단	의무기록사	1명	041-741-5552	연 2,500만원 이상	청양	(주)재유(본사)	제조 단순 종사원	3명	010-9344-7125	월 250만원 이상

2023.8 문화 달력



자료제공/충남문화관광재단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	---	---	---	---

23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8월의 여름 클래식

기간: 2023.08.23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
시간: 14:30
비용: 무료
대상: 초등학생이상
문의: 041-833-8562

24

정지음 작가와의 만남- 실패해도 괜찮아

기간: 2023.08.24
장소: 천안쌍용도서관 문화사랑방
시간: 19:00
비용: 무료
문의: 041-521-3731~2



29


서산챔버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기간: 2023.08.29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9:00
비용: 무료
문의: 041-661-8023

25


Vienna Classic

기간: 2023.08.25
장소: 당진문화예의전당 대공연장
시간: 19:30
비용: P석 30,000원, R석 20,000원
S석 10,000원
대상: 만 7세 이상
문의: 041-350-2911

25

Dream Reference 오감의 하루

기간: 2023.08.26
장소: 신불당아트센터
시간: 10:00
비용: 무료
문의: 1533-8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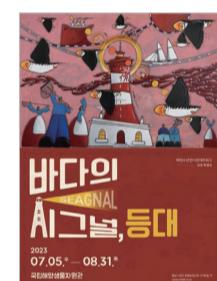
31

여행작가임택

기간: 2023.08.31
시간: 16:00
비용: 무료
문의: 041-750-4424

**Beyond the Best of Music
박정현 & 몽니**

기간: 2023.08.26
장소: 서산시문화회관 대공연장
시간: 17:00
비용: S석_40,000원/A석_30,000원
문의: 041-661-8023


2023 해양수산전시관 네트워크 교류 특별전 '바다의 시그널, 등대'

기간: 2023.07.05 ~ 2023.08.31
장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층
비용: 무료
문의: 041-950-0600


2023 충남역사박물관 정기특별전 충청의 문을 열다

기간: 2023.04.8 ~ 2023.8.31
장소: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야외무대 및 1층 기획전시실
시간: 14:00
문의: 041-856-8662

천안시 승격 60주년 특별기획전 <관계도시: 유동하는 미래>

기간: 2023.06.16 ~ 2023.08.27
시간: 10:00
장소: 천안시립미술관 전시실 전관
연령: 전 연령
관람료: 무료


신진청년예술인 갤러리 - 오예진 작가


(가면 추모, oil on canvas, 130.3x97.0cm, 2023, YEJIN OH)

▲ 작품설명

자신의 우주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작가의 오랜 상징이자 메타포인 '탈(가면)'을 추모하며 떠나보내는 특이점을 맞이했습니다. '탈(가면)'은 때때로 개인의 진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보호해 주는 데 사용되며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쓰였던 '탈(가면)'을 '떠나보내겠다'는 것은 자신을 감추지 않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직한 자아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거나 상황에 진실하게 대응하며 사회적인 기대나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본인은 새로운 경험을 허용하고 불안과 두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성장하려는 의지를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새로운 시각적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우주로 떠나는 상여'와 '탈이 울려진 고사상' 이미지가 특징입니다. 작품을 통해 작자가 '탈(가면)'을 떠나보냈듯 관람자가 떠나보냈던 소중한 사람이나 과거의 경험 또는 감정을 작품에 함께 참여하여 추모하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바랍니다.



충남관광문화재단 제공 /Photo by Nah Seung Yul

●약력

- 2021 공주문화예술촌 제5기 창작레지던시
- 2020 원광대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 졸업
- 2015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 2022 '돌보는 감정', 고마아트센터, 공주
- 2021 '무탈하게', 공주문화예술촌, 공주

사서들의 서재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전미경/웅진
식하우스/2023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려 할 때가 있다. '나'를 돌아보려 시작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 나에게 더 상처를 주기 전에 생각의 꼬리를 끊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전미경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의 고리 끊어내기
작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저자는 자존감 열풍 시대에 '가짜 자존감'을 화두로 던지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의 작가이기도 하다. 현재 천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저자가 이번에는 나쁜 심리 습관을 끊어내고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책을 썼다.

습관적으로 자책하고, 상처를 곱씹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숨겨진 심리적 역량과 주도력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돋고 싶었다는 저자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과거의 상처를 오래도록 곱씹는 버릇,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

는 습관 등을 멈출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자책과 후회, 불안함 등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은 상담을 했던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 또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나쁜 심리 습관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자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단단히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며 힘들지만 과도한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심리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의 불안과 나의 과거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깨달을 것이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서관 정소이 사서

“10년 후 금산 대표작물로 표고버섯 찜했어요”

충남 청년농부가 간다

프로그래머에서 새내기 영농인 변신 진한별 씨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해 특별한 선물용으로 판매 전략

“10년 후 금산의 대표 작물에 표고 버섯을 추가시키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버섯 재배 농민으로 변신한 진한별(35) 씨의 목표 중 하나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IT 기업에서 잘 나가던 진씨가 농사일을 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내 일을 하고 싶다”였다.

넉넉한 연봉 덕에 직장생활 10년 이 채 안돼 목표했던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되자 진씨는 ‘돈도 벌고 내 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여러 아이템을 조사하고 탐색을 거쳐 표고버섯을 최종 목표로 정했다.

농업에 문외한인 진씨는 그때부터 각종 영농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서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창업을 하면 작은 공장처럼 운영하는 농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2020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 버섯재배사를 지으면서 본격적인 농사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경험이 없는 데다 지인도 없는 금산에서 재배사를 짓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 금전적인 손실도 뒤따랐고 몸으로 떼우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갔다.

농장 공사 중 수익이 없을 때는 깃잎 수확부터, 용접, 마트 알바, 택배 상하차 등을 마다 않고 직접 유튜브를 보면서 기술을 익혀 농장 설비 대부분을 자신으로 손으로 직접 마련할 수 있었다.

모아놓은 저축에 청년대출을 받아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 3개 동의 버섯재배사를 완공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표고버섯을 생산했다.

첫 해 8천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진씨는 올해 1억, 내년 1억5천, 2025년엔 3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선물용으로 사과나 배, 포도, 흉삼 등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표고버섯 선물용 상품은 조금 특별하고 센스있는 선



진한별 씨가 금산군 남일면 신천리에 지은 버섯재배사에서 표고버섯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물이 될거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며 “고품질 표고버섯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에 특별한 선물을 원하는 30~50대를 겨냥했다”라고 장기적인 상품 판매전략을 설명했다.

올해까지 생산력과 품질 관리를 안정화시킨 뒤 내년부턴 가공을 통한 선물세트 구성에 나서며, 나아가 원격제어 상품을 개발해 농장에 보급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진씨는 앞으로 표고버섯을 활용해 슬라이스, 각각 썬 표고를 건조해 선물용 제품을 선보이고, 냄비반합에 생표고와 건표고, 페스토를 담아 캠핑시 버섯구이와 버섯차, 각종 요리

에 조미료로 쓰일 표고가루 등의 판매전략도 수립했다.

진씨는 “부족한 저를 멘토 스승님과 버섯연구회 대표님들께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덕분에 농사짓고 있다”라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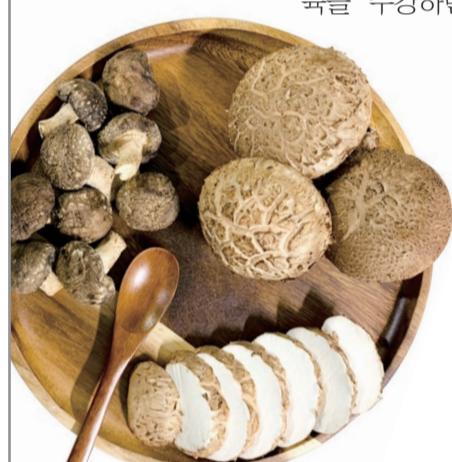
발품팔며 알게 된 인연으로 금산군 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금산 인구 유입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농구 동호회에 가입해 지역의 젊은 청년들과 소통하며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진씨는 “다른 농장에서는 어떤 식

으로 작업하는지, 새로운 소식은 무엇이 있는지 등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장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되짚어보고 사업전략이 경쟁력이 있는지 다양하게 소식과 정보를 접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쉽다”고 조언한다.

이어 “삶의 도피처로 농촌을 택한다면 말리고 싶다”라며 “시골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경쟁은 적고 기회는 많겠으나 본인이 스스로 움직여야만 허락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신문팀



“피아노 쳐유”… 엄마들의 행복한 반란 ‘PIU’

앙상블 PIU의 ‘피아노 바캉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을 만들기 위해 당진의 피아니스트들이 모인 피아노 앙상블 PIU(대표 박항수)가 장단 후 첫 번째 공연으로 ‘피아노 바캉스’를 준비했다.

지난 17일 ‘온가족이 함께하는! 피아노 바캉스’라는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서 PIU(피유)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만화영화 주제가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들을 4hands 형식으로 연주했다.

공연 전, 첫 번째 연주를 맡은 이호임 피아니스트는 “오히려 아이들이 공연 중에 돌아다니고 떠들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도 공연장이 불편한



차선희(왼쪽), 최은자 피아니스트의 4hand 연주

곳이 아니라 또 오고 싶은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진행을 맡은 차선희 피아니스트의 상냥한 말솜씨에 관객들은 금세 눈을 반짝였고, 뾰로로와 포켓몬스터, 슈퍼마리오 등의 주제가 가 연달아 연주되자 관객석에서는 저

도 모르게 박수를 치려다가 멈춘 채 입을 틀어막고는 놀란 눈을 엄마에게 맞추거나 아예 따라부르는 아이도 있었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대의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름다운 선율과 리드미컬한 반주로 호흡하자, 객석에 앉은 어른들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까딱였다.

이어서 연주된 춤곡에서는 진행자의 안내를 따라 아이들이 춤을 추기도, 손가락으로 지휘를 하기도 하면서 저마다 ‘음악의 바캉스’에 빠져들었고, 공연의 막바지에 다다르자 네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몸이 되어 연주하는 8hands로 대미를 장식했다.

/당진신문 제공

자리를 지켜내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오세의 프로는 “프로 데뷔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어 대단히 감격스럽다. 우승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며 “늦은 나이에 프로 데뷔 첫 승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 등 많은 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오 프로는 2002년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치료하기 위해 골프채를 잡았고 SBS골프 레슨 프로그램을 통해 골프를 독학했다.

/주간태안신문 제공

농민 골퍼 오세의, 프로 데뷔 첫 우승

스타자동차 시니어오픈 정상

충남 태안군 원북면 출신으로 농사를 지으며 프로 골퍼로 활약 중인 오세의(56·사진) 골퍼가 ‘제3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 시니어 오픈(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 6백 만원)’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프로 데뷔 첫 승을 달성했다.

지난 3일과 4일 경북 포항 소재 포항CC(파72, 6,861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 날 오세의 프로는 보기 없이 버디8개를 작성하며 8언더파 64타로 공동 2위 그룹에 4타차 단독 선두 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1번홀(파4)에서 출발한 오세의 프로는 7번홀(파5)에서 이번 대회 첫 보기글을 범했지만 12번홀(파4)과 17번홀(파4)에서 베디를 작성해 선두

(재)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과 함께하는 솜씨 자랑

“인생 막차는 꽃밭”

백합반 장 경순

웃지못할 현실에 한无助며

60평생 천릿수원

시술 시술 시술에 금파

인생 막차라고 보내

송이 송이 꽃밭이네

꽃밭임자 누구일까 바라보니

가꾸는이는 우리 모두였네

미라꽃 본유꽃 경순꽃 구역내비

꽃밭임자 흐뭇해하며

꽃밭오기 기다리며



해나루 시민학교
장경순 학습자



장경순 학습자 작품 ‘인생막차는 꽃밭’

기호유학의 특징과 유교문화

내포칼럼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한국인 비자발급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중국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충남은 황해와 접해있어 바닷길을 통한 타 문명과의 접촉이 늘 활발했다. 특히 고대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물류뿐만 아니라 정신사상까지 포함하였다.

중국 공자의 사상인 유학이 우리나라에 언제 전해졌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로 삼국시대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지역의 유학 연원을 살펴보면 일찍이 백제시대 오경박사 제도나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왕인박사의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고려말 안향과 함께 성리학의 보급에 크게 기여한 보령의 백이정, 당시 사상계를 주도한 서천의 이색, 조선 초기 아산의 맹사성, 홍성의 성삼문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기호유학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기호’는 경기 지역과 호서(충청도) 지역을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의 유학이라는 말이다. 왜 충청도와 경기도가 한 끊임으로 엮

인 것일까? 이는 조선 중기 이후 유학의 발전과 학파의 형성에서 비롯되었다.

기호유학은 크게 율곡학파와 우계학파 양 날개로 발전해 왔다. 율곡 이이와 우계 성훈의 주요 거처가 경기도였고 그의 제자들은 주로 충청도 출신이

통이 그의 사위인 윤황에게 전해지고 이후 윤선거, 윤증으로 계승되었다.

그밖에 화담 서경덕 계열의 토정 이지함, 박지계 계열의 권득기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학파와 계열의 유학자들은 성리학·예학·의리학·기학·실학·양명학·역학·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

과 수용성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양성과 개방성 이외 기호유학을 대표하는 특징은 바로 예학에 관한 연구다. 율곡의 학통을 이은 사계 김장생은 ‘조선 예학의 비조’로 불린다. 예학은 주로 가례라고 하는 관혼상제 4가지에 대한 예법을 말한다. 김장생과 그의 제자들은 예법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19세기까지 이어졌다. 우리가 고루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미지로 생각한 유학자들이 한편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바로잡고 노력한 존재였다.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물질주의에 몰두되었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예의를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MZ 세대에 대한 부분적이고 왜곡된 색안경일 수도 있다. 기호유학의 특징은 앞서 언급했듯 다양성과 개방성이다. MZ 세대를 들여다볼 때 묘하게 겹치는 면이 있다. 개방성, 공유문화, 그리고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들. 이제 우리 유학이라는 학문과 유교문화에 대해 다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다.

‘기호’는 경기도와 호서(충청도) 합친 명칭
기호유학은 다양성과 개방성, 예학 연구가 특징
다양·개방성·공유 문화 등 MZ세대와 겹치는 부분 많아

”

었기에 후대 이 두 지역을 합쳐서 기호학파라고 부르게 됐다. 이는 한국 유학사를 이야기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경상도 영남학파와 구분하기 위한 지역 구분일 뿐이다.

율곡학파는 이이의 학설을 계승하려는 김장생, 송시열 계열이 조선 후기 까지 지속됐다. 우계학파는 성훈의 학

문을 연구했다.

조선시대 중후기 충청지역은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라 불리는 4색 당파가 모두 존재하였고, 그 가운데 율곡계 서인 노소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문이 바로 정치로 연결되는 조선시대 기호유학의 학문적 다양성은 바로 황해를 통한 지리적 개방성

탄소중립의 미래, 충남 수산업

충남도에 바란다



이연승
홍익대학교 교수

최근 2023년 세계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그 막을 내렸다. 캠프를 떠나 뿔뿔이 흩어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충청남도도 각계각층의 한 마음된 노력과 희생을 함께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기후변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구 기후변화로 인간이 겪는 도전과 시련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적 노력은 결국 비용의 문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와 그린수소 등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가장 높은 충남은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범국적 사업에서 국민 개인이 실천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좁은 국토, 기술적 장벽과 사회 수용성의 한계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떠오르는 대상이 바다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바다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중 이른바 ‘블루 카본’이 특히 주

목받고 있다. 블루 카본이란 해초, 염습지, 맹그로브(mangrove) 등 해양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지칭한다.

서해안을 따라 천혜의 습지와 다양한 연안 생태계를 접하고 있는 충남은 그야말로 대규모이고 자연친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 곳이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무탄소에너지 생산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에 이르기까지 해양에서 첨단기술과 규모경제 기반의 직간접 대체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바다는 넓은 면적만큼 많은 생물이 살고 있어 열대우림 지역보다 더 뛰어난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이 녹아 있는 바다는 이 때문에 산성화하면서 해양 환경이 악화한다.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석회 가루)은 굳어서 해저 생물이나 해저, 바위 등에 침전돼 하얗게 변한다. 이를 갯녹음 즉, 백화 현상이라고 한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해조류가 자랄 수 없는 ‘바다사막’으로 변한다. 이 탄산칼슘은 조개껍데기, 굴 껍데기와 같은 성분으로 지각에 두꺼운 지층을 형성하는 석회석이 된다.

45억 년 전 탄생한 지구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가득하던 시절,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산칼슘 즉, 석회석으로 지각에 친환경적으로 탄소를 영구 저장하였다. 요즘 인간이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해 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 (CCUS)과는 차별화된 자연 대기 정화법이다. 이렇게 지각에 쌓인 석회암층이 그 사실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따라 조개껍데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인해 연간 30만가량 배출되는 조개껍데기나 굴 껍데기를 탄산칼슘으로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제철소에서 석회석 대신에 패각을 가공해 만든 석회 분말을 소결(燒結) 공정에 활용하거나, 농업용 토질 개선제, 석회 비료 또는 자연 친화적인 건축 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양 구조물이나 방파제, 인공어초 등 친환경 해양 시설물로도 가능하다.

미국은 체사피크만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해 해양 정화, 암초 복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해양수산생물 인공서식지 조성을 통한 종 복원 및 수질 필터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토양 개량제, 인공어초, 수산자원 조성 등에 활발하게 응용 중이다.

이제 충남이 나설 차례다. 충남 지역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굴, 조개 양식을 통해 해양정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소규모 어촌계 패류 양식장을 현대화, 대형화하고 체계적 생산, 유통, 식품 개발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대, 패각 가공 및 활용까지 이어진다면 충남의 대표적 청정산업과 새로운 차원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 굴과 조개 양식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조개, 굴 패각이 맹그로브 나무처럼 UN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미희 어쩌다 마주친 폰카 시



수박을 두드려보며 숙성 정도를 알아내려 합니다.
어린아이도 따라 합니다. 고개를갸웃거립니다.
손등 청진기로 진단하지만 아리송합니다.
맛있는 수박일지, 이름만 수박일지.
저마다 다른 소리를 잡아내는 건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의 수박 감별사 경력은 어찌 되나요?

수박

톡톡,
수박의 언어로 물었다
수박은 주로 두 글자로 말한다고
할머니가 힌트를 줬다
실제 그랬다

탱탱!
튕겨 나올 듯 신난 목소리
깨어날 준비가 됐단다
나는 바로 알아들었다
언어 장벽은 없었다
지난여름 시골서 보낸 어학연수 덕이다.

찌억!
아기 수박이 빨강을 뿐내며
환호성을 질렀다



김미희
시인·동화작가

“선열 뜻 받들어 더 나은 충남의 미래 만들 것”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서
애국 정신 계승 다짐해

충남도의회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흥성현 제2부의장을 비롯한 21명의 도의원들은 8월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축식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보훈단체 등 주요 기관·단체 대표와 내빈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국민의례와 묵념, 기념사와 유공자 표창, 만세삼창, 특별전시회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불굴의 용기와 의지를 이어받아 충남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충남도의원들.

연구모임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위해 관련 법령 분석

구형서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은 8월 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3차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을 비롯해 정병인 의원(천안8), 김선태 의원(천안10),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김미화 의원, 충남도교육청 담당자와 과밀학교 학부모, 연구용역을 맡은 호서대학교 이노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요청자료에 대한 논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과밀학교 교육여

건 개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유됐다. 회원들은 실현 가능한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구형서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센인 복지 개선, 즉각적·현실적 대책 요구”

이연희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대표 이연희)은 8월 22일 논산시 한센인 정착촌인 성광마을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논산 광석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센인 정착촌 복지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센인 정착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면접 조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단은 한센인들 대다수가 고령에 만성질

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은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한센인 지원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가이드 개발”

전의현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교육 환경조성 연구모임’(대표 전의현)은 8월 11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서천군 소재)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의현 의원(서천1)과 구형서 의원(천안4),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18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은 책임연구원인 남서울대학교 김은실 교수, 연구원인 광주교육대학교 손현동 교수이며,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이 연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의현 의원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교사를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여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돋겠디”고 밝혔다.

의원 전문성 제고 위한
스피치·AI 활용 교육
언론대응, 스피치 기법 등

충남도의회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를간 12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제2차 ‘의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첫 시간은 MBC 이종각 PD가 ‘언론과 친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언론대응 기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천안시청 서성희 아나운서가 스피치의 기본과 좋은 연설문 작성법 등 스피치 기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세 번째 시간에는 한국마이크로 소프트 진동한 상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례안 작성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언론 대응과 스피치 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함께 주어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지역 마을교육 활동 지원 정책 필요

김명숙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명숙)은 8월 7일 충남도립대에서 회원 및 연구진, 의회 입법부서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이날 연구모임은 2023년 과제인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읍면 단위 정책협력 강화 방안 연구’(이하 연구용역) 용역의 최종보고회도 함께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았던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 충남 마을교육동체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명숙 의원(청양)은 “여러 부처에서 마을 단위에 개별 추진되는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려면, 주민협의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읍·면 단위 행정뿐 아니라 기초·광역 단위 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자 동기유발 통해 건강도시 활성화”

이종화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8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건강도시 조성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이종화 의원(홍성2)을 비롯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내포발전통합위원회 송채규 회장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다.

송채규 회장은 개인·단체 등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시민 공동체가 함께 개인과 집단의 건강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건강도시 조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폐교 활용 연구’ 중간보고회

편삼범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은 8월 1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5차 연구모임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중간보고회는 5월부터 시작한 ‘충남형 폐교 활용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내용 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맡은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는 ▲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의 전망 ▲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모델 구상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보완점을 청취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광역 연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충남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충남도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서남부권(보령·서천·공주·논산·계룡·금산·청양·태안)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확보해 감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힘써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홍성현(천안·국민의힘)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지역 균형발전은 충남의 중요 현안 사항으로 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함께 발전해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현재 충남 북부권의 경우 외부적으로 발전해 보이나 도시 팽창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 역차별 문제가 심하다. 교육의 경우, 천안을 비롯해 도내 몇 학교는 학생 수 과밀로 급식실 수용인원을 맞추지 못해 학생들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순차적으로 점심을 먹는다. 학습에 매진해야 할 학생이 급식실 공간 부족으로 4시간여에 걸쳐 점심을 먹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이외에 천안도 불당동을 제외한 천안 동부권은 농촌 시골 지역과 다름없다. 도시가 팽창하면 그에 맞춰 기반 시설도 확충해 가는 것이 기본인데, 급성장에 따른 역효과로 겉은 화려하나 속은 병든 모습이 돼 버렸다.

인구 유입이 안 된다고 출산을 외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좋은 예로 충남 시군 중 보령시를 들 수 있다. 현재 보령으로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미드죽제’라는 상징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 간다면 인구 유입도 자연히 이뤄질 것이다. 수영장, 헬스장, 육아카페 등 운동이나 복지 등 생활 여건만 좋다면 얼마든지 인구는 유입된다. 지자체장이 더 노력하고 착안해 가야 할 부분이라 판단한다. 특히 도의원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충남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피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여건에 있어서 충남 서남부권의 교육여건은 절대로 뒤처지지 않으며, 북부권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만 살피면서 치우치기 보다 모든 도민을 위한 발전대책 발굴을 위해 더 힘쓰겠다.

정치 인생 중 5번의 도전을 통해 당선과 낙선을 반복하다 보니 누구보다 의정활동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다만 그전에는 스스로만 잘 하면 된다고 여겼으나, 제2부의장으로서 1여 년간 의장단 활동을 하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의장님과 당을 떠나 48명의 의원 모두가 편안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해가겠다.

충남도 불균형(북부권·서남부권) 논란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둘 건지?

충남도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불균형이 이뤄진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있다. 북부권역이 전국을 잇는 교통 편의성으로 공적·민간 자본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지역별 발전 속도에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거기에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산업단지를 유치하더라도, 기업이 입주하고 정주하기 편하게 여건이 마련됐다. 기업은 기반인 잘 닦여 있는 지역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모험을 하지 않으려 한다. 천안처럼 현재 상주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연계되는 기업 유치로 시너지를 시켜나감으로써 주변 지역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역마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서로 다른 만큼 이를 특화하나 간다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충남 서남부권을 단순히 북부권(천안·아산)처럼 개발하고자 하기보다, 15개 시군이 각자가 가진 특유의 자연이나 관광 등 차별적인 경쟁력을 키워 가야 한다. 다만 필수적으로 충남 시군 전체를 연계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도로·철도망을 보완해 가는 게 가장 먼저다. 북부권과 서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문화, 복지, 교육,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나가면 될 것이다. 현재의 충남은 충남에, 또 시군에 너무 갇혀 있다. 인근에 대전·세종·충북이 있는데 초광역권으로 생각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한 방안이다. 서로를 연계해 나가는 방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지역에서만 풀려고 보니까 자꾸만 부딪히게 된다. 초광역권을 통한 지역 간 연계로 상생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 전역의 교육과 인력양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 교육 기관을 육성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인력 유입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핵심이며 미래 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충남 지역의 과소·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갈 것이다. 특히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과밀학교 문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다. 이외에도 항상 도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충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가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 지역민원상담소란?

충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충남도 내 15개 시·군에 총 1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민상담소입니다.

▶ 지역민원상담소 상담신청

내 집에서 편하게 전화예약.



지역명	상담의원	주소	전화번호
천안1	홍성현, 신한철, 안종혁, 신순옥, 이현숙	천안시 동남구 충질로 115, 3층	041-554-0008
천안2	구형서, 유성재, 김도훈, 오인철, 정병인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45, 401호	041-566-3702
천안3	박정수, 김선태, 양경모	천안시 서북구 미라 16길 14	041-574-0007
공주	고광철, 박기영, 박미옥	공주시 백미고을길 17-12, 2층	041-855-2242
보령	최광희, 편삼범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45, 2층	041-936-5388
아산1	오안영, 김웅규, 박정식	아산시 외암로 1544-3, 2층	041-547-5927
아산2	조철기, 안장현, 지민규, 이지윤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221, 2층	041-546-1101
서산	김옥수, 이용국, 이연희	서산시 고운로 153, 2층	041-665-1235
논산	윤기형, 오인환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8, 2층	041-734-0064

지역명	상담의원	주소	전화번호
계룡	이재운	계룡시 서금암로 17, 2층	042-840-5719
당진	이철수, 이완식, 최창용	당진시 시청2로 18, 2층	041-358-3250
금산	김석근, 김복만	금산군 금산읍 후끈천길 53, 2층	041-751-5555
부여	김기서, 조길연, 김민수	부여군 부여읍 부장대로 28, 2층	041-835-3330
서천	전의현, 신영호	서천군 서천로 157-1, 2층	041-952-1650
청양	김명숙	청양군 청양읍 철간산로 4길 37, 301호	041-943-0613
홍성	이상근, 이종화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32 C동 201호	041-633-2333
예산	방한일, 주진하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1길 20, 6층	041-333-9606
태안	윤희신, 정광선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1, 1층	041-675-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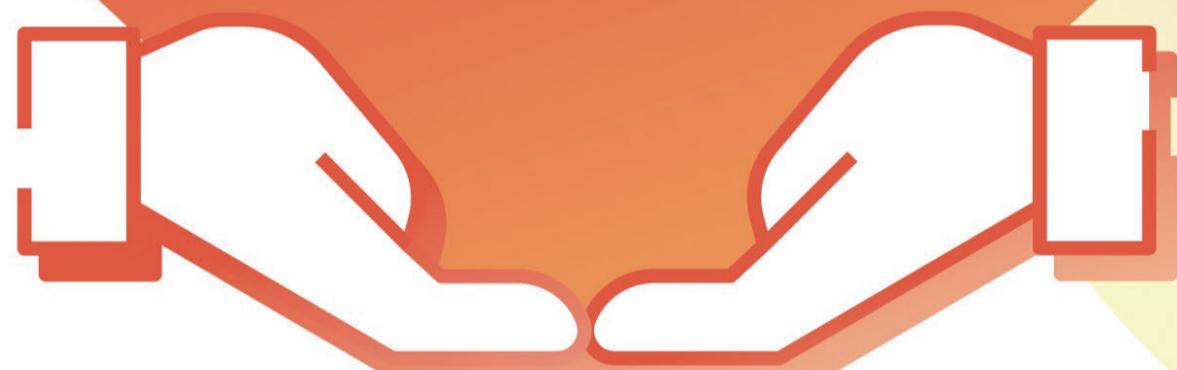
* 각 지역별 상담소의 위치, 전화번호와 운영시간은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지역민원상담소 - 지역민원상담소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2023. 1. 1 시행

내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웃특별한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충청남도



충청남도민



주민 복리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